

## 한국의 CAPD 현황, 1992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### 이 회 발

#### 서 론

본 조사는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APD를 시행한, 전국의 25개 센터로부터 보고된 1,4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1992년 중 신환은 466명, 이식환자 62명, 사망 94명 그리고 CAPD 중단 214명으로 1992년 말 현재 1,092명이 CAPD를 계속 하고 있었다. 녹십자의공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1992년 말 현재 전국의 혈액투석 환자는 5,501명, CAPD 환자는 1,574명, 총투석 환자는 7,075명으로 CAPD 환자는 전체투석환자의 22.2%, 등록된 CAPD 환자는 추산 환자의 69.4% 이었다.

신환 466명의 남녀 비는 57:43, 연령 별 분포는 50대가 28.4%로 가장 많았고 40대 23.3%, 30대 16.1%, 60대 15.2%순 이었다. 신환의 원인질환은 당뇨병이 31.1%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성사구체신염 30.3%, 고혈압 12.9%의 순 이었다. 전체 환자 1,462명의 30%는 Swan neck 도관을, 56%가 직선형 도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84%는 2중 Cuff를, 25%가 Y형 또는 다른 분리식

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.

합병증의 빈도는 1 환자년 당 복막염이 0.9회, 도관주위 감염이 0.3회, 도관제거가 0.2회 이었다. CAPD 시작후 6개월과 9개월에 최초의 복막염을 경험할 가능성은 각각 46%와 52% 이었다. 환자 생존율은 6개월과 9개월에 각각 93%와 91%, 기술 생존율은 각각 93%와 87% 이었다. CAPD 시작시의 연령은 환자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9개월 생존율은 20세 미만에서 100%, 20-64세에서 92%, 65세 이상에서 83% 이었다. 당뇨병환자와 비당뇨환자의 9개월 생존율은 각각 92%와 91%로 차이가 없었다.

CAPD를 중단한 환자 214명의 83.4%는 HD로 전환, 19%는 추적 불가, 2%에서는 신기능이 회복 되었다. HD로 전환한 이유로는 복막염이 81.9%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관 주위 감염 5.8%, 한외여과 부전 4.7%, 환자 또는 가족의 선택 2.9% 순 이었다. 사망의 원인으로서는 뇌혈관 질환이 13.8%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다음이 감염 12.8%, 심장 질환 12.8% 순으로 많았다.